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7주차



1. 시간 관리 전략

핵심은 시간 관리!

목표: 짧은 시간 안에 길 글의 정보를 파악& 더 짧은 시간 안에 선지 고르기

글의 특징:

글의 길이가 길어지고 정보가 많아짐

비교 대조와 상관관계 등을 통해 개념들의 복잡한 관계가 제시(EX/ 입장강도 압축강도, 철근 콘크리트)

배경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 제시(열효율은 결국 2가지 온도에 의해서만 정리됨)

결국 정보도 많고 그 정보들을 이해하기도 어려움

문제 특징:

글이 어려운 만큼 문제의 난이도는 낮음

문제는 대부분 순수한 내용 일치+ 아주 간단한 추론

주로 한 문단에서 하나의 문제가 등장

글의 전체적인 구조 보다는 세부 개념들간의 관계를 많이 물음(EX/ 압축강도 입장강도, 포아송 비)

전형적인 문제가 계속 등장(EX/ 보기문제 'ㄱ'에 대한 이해 문제)

전략:

전체적 유기성에 집중하 독해보다는 문단 안에서 개념간 관계에 집중하 독해!

문제 풀이 프로세스와 스킬을 정리!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7주차

2. 액션 플랜

기본 전제:

독해법과 문제풀이 스킬에 있어서 대대적인 수술은 좋지 않다.

현재 가지고 있는 개념을 더하고 빼 실전에 맞게끔 변형한다.

접수와 직결되는 독해 시간을 줄이기 보다는 문제풀이 시간을 줄여간다.

독해법:

CF) 기본 독해법(프린트 참조):

주제 파악(WITH 문장의 결론& 연결)// 세부정보 파악(정의,상관 관계& 비교 대조& 과정 원리 & 대응)// 서론 WARM UP(시간 더 쓰기)

보완된 독해법은 세부정보에 '전체적 구조와 완벽한 이해'를 줄여 시간을 줄이고 '세부정보'에 포커스를 맞춰 정답률을 높인다.

지금 읽고 있는 방법에 '비교 대조& 상관관계'는 집중+ 이해보다는 정보만!

①문단 안에서 비교 대조는 꼭 체크하기 (X&Y)

EX)사단은 법인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X)사단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Y)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단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한다...

반면에, 그러니, 이와 달리, 달리, 반면, 만// 꼭 비교 대조는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가기!& 비교되는 세부 개념 자체만 보기(법인격O& 사단O VS 법인격X& 사단O)

②문단 상관 관계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기 (A 늘면 B 준다& X= Y/Z)

EX)지름 변화의 절댓값을 높이 변화의 절댓값으로 나눈값을 포아송비라 한다(포아송비= 지름 변화의 절댓값/ 높이 변화의 절댓값, 상관관계, 지름 변화가 클수록 포아송 비 상승, 높이 변화의 절댓값이 작을 수록 포아송 비 상승)

요즘은 점차 그 중요도가 올라감 A가 올라갈수록 B가 올라간다는 말이 나오면 꼭 관계 한번 더 정리 하고 가기.

이뿐만 아니라 X는 Y를 Z로 나눈 값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변수간 관계 살피기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7주차

③배경지식이 없는 글에서는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정보들은 TEXT로만 정리하기 (이해 보다는 정보 그 자체의 위치만 파악)

EX)통슨은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증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 이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문송함! 열기관이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이 낮은 온도에서 방출되는 것이 왜 에너지 보존법칙과 증가성과 다른 것인지 또 왜 이게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것과 다른 의미인지 알수가 없음. 이럴 때는 그냥 방출은 증가성과 에너지 보존과는 맞지 않고 이게 실제와 관련된 관측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 함

가장 좋은 접근은 처음부터 배경지식이 없다면 개념간의 관계만 살피겠다는 생각. 완전한 이해는 필수는 아니라는 생각 이를 위해서는 문장의 결론에 집중하고 그 결론들을 한번 연결해둬으로써 정보의 위치를 묶어서 파악

④정보가 너무 많을 때는 개념들을 다른 문단의 내용과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문단 안에서만 정리하기

EX)

앞 문단- 골재

다음 문단-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형태면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정보 겁나 많이 제시(이때 굳이 골재와 철근 콘크리트를 연결해 가면서 글에 나와있지 않은 생각까지 하면서 읽을 필요는 없음/ 선지 나오면 그때 하면 됨)

최근 트렌드인 엄청난 정보가 제시되는 글에서는 복잡한 추론 보다는 순수한 내용일지 문제가 많이 제시됨 즉 선지 내용을 한번 더 꼬아서 낸다거나 '~할 수도 있다' 등의 표현을 활용하지 않음. 동시에 한 문단 당 하나의 문제가 제시

따라서 이런 문제 에서는 다른 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을 고민하면서 글을 읽기 보다는 문단 자체의 주제 문단안에서의 개념간 관계를 살펴야 함

<추가>

글을 읽고 배경지식은 추가로 계속 정리하기(특히 과학 기술& 인문 지문)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7주차

문제 풀이 방법:

핵심은 내용 일치

여러가지 논리구조를 거치면 오답& 나와 있다면 정답! 나와 있지 않다면 오답이다!

요기에 두 가지 원리와 4가지 풀이 스킬만 완벽하게 암기//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함

① 의미를 물을 수 있게 됨 특히 추론을 할 수 있게 됨

EX) 장미는 A하다 → 어떤 식물은 A라는 특성과 관련이 있군 → 국화도 A할 수 있겠군

'이러할 수 있겠군'이라는 서술어와 함께 제시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참임. 문학처럼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참이 될 수 있음

② 또 중요한 건 문학과는 다르게 P&Q가 그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P'&Q'이 사용

선지에 등장하는 용어들도 텍스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기 보다는 일반화와 예시를 통해 변화

EX) 이력 현상이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이력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어느 점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 과냉각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EX) 선지: 이력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물질은 과냉각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선지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와 예시를 통해 개념의 표현을 약간 변화. 문제를 쉽게 풀고 싶다면 '이력 특성이 있는 물질'-'물'로 바꿔서 풀어버려!

<추가 문제 풀이 스킬>

① 보기: 줄글은 어려움. 줄글을 글의 개념으로 혹은 몇 번째 문단으로 바꿔놓기

EX) 줄의 이론과 비교 해봤을 때 주어진 열(A) 대비 한 일의 양(B) 즉 B/A 는 항상 (가)하다.

줄글로 이루어진 보기를 글의 개념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줄의 이론을 '등가성' &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치환하고 B/A 를 '열 효율'로 치환한 다음 문제를 풀어야 한다.

② 7에 대한 이해: 그 문단의 결론 5초동안 연결하고 문제 풀기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7주차

EX)사람으로서의 인격과 법인격이 분리되지 않은 문제. 원래 이사회만이 의결기관.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주주가 한 사람이면 그의 뜻대로. 허울만 남음. 재산상 피해. 일시적 부인. 일인 주주에 의한 완전한 지배& 회사에만 책임을 비판

일인 주주에 의한 완전한 지배를 막고 회사에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함-5번

핵심은 판단의 기준점이 앞뒤에 있다는 것 따라서 체크된 문단의 서술어를 먼저 연결한 뒤 풀기

③보기+ 변수간 상관관계(28번): 미리 변수간 수식을 옆에 써두고 변수들을 변화& 답은 주로 4번 아님 5번

EX)포아송 비는 지름 변화량의 절댓값을 높이 변화량의 절댓값으로 나눈 것이다. 이는 미리 밝힌 포아송 비와 일치하게 된다.(보자마자 상관관계 확인)

식이 나오고 이 식에서 정비례 반비례/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 관계가 나온다면 우선 식부터 정리하기!!& 주로 답은 4번 아님 5번이다!

④ 비교 대조: 범주 바꾸기(A → B)

EX)철제는 변형 정도 적으면서 인장강도와 압축강도 모두 높다. 반면 콘크리트는 철제에 비해 인장강도와 압축강도가 모두 낮지만 비교적 압축강도는 높은 특성을 보인다. 실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드는 길이보다 인장력을 가했을 때 늘어나는 길이가 짧다.

철제- 변형정도 크다 X& 철제- 콘크리트에 비해 압축력을 가했을 때 더 크게 준다O

범주를 항상 고민!

A- B(X) // A-A'(O) // A-B'(X)

3.추천 과제

독해법의 보완(작은 변화)

비교 대조 상관 관계 같은 세부정보에 집중// 이해 보다는 정보 위치만

핵심은 문제 풀이 스킬 정리

2가지 원리+ 4가지 스킬

과제는 실모도 OKAY BUT 사관학교 기출부터 좀 풀자

구글: 2016 육사 기출 검색 후 2009학년도 까지 다 풀어보기!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